

#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 안전운전 홍보 캠페인·자치경찰제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 등 추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가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본격 시작한 이후 8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위원회는 출범 100일 기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15개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개최, △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자치경찰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1차례 회의를 개최, 30개의 안전을 심의·의결했는데, 위원회 운영규정 및 인사운영규정,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내실화,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종합 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치안정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선정, 아동의 24시간 생활주기를 분석해 5가지 분야(가정, 학교, 학교 밖, 통학로, 동네)의 치안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종합 안전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전국최초로 여성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자율방범, 인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경찰관까지 참여한 '참여형 뉴거버넌스 실무협의체'를 구성,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8일 도내 14개 시·군의 1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치경찰이 함께하는 안전환스롭 등 곳곳 캠페인을 실시한다.

홈페이지(www.jonbuk.go.kr/apc)를 개설하고, '전북 소통대로'에 오픈이벤트를 개최(10. 12 ~ 25)해 참여자에게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추첨·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의 이미지가 반영된 관소리풍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도내 시·군청 및 경찰서 전광판, SNS(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제 자치경찰 출범 100일과 발맞춰 자치경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조그만 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바뀌어나는 것"이라며 "도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나서

### 본부장·팀장 등 필수인력 7명 우선 채용... 13~19일 온라인 접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이 직원 채용에 나선다.

전북도는 재단설립과 개원 준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본부장 1명, 팀장 3명, 수석직원 3명 등 총 7명을 경력경쟁 방식으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달 29일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 결과에 따라, 설립자인 전북도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재단법인 설립 후인 11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직원 채용은 전북도의 인재 발굴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로 돼 있는 자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http://jonbukpass.torc.co.kr)를 통해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19일까지 제출한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7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환경 조성으로 전북도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 준비가 돼 있고 역량을 겸비한 우수 인재들이 많이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우선 채용한 7명에 이어, 남은 1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재단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단에서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위드 코로나 대비 국제행사 발굴 논의

### 전북도, '국제행사 동향 유치사례 공유회' 가져



전북도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전주 왕의 지실에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7일 개최했다.

전북도가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전주 왕의 지실에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7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행사를 한국관광공사 '유니크베뉴'로 선정한 '왕의 지실'에서 진행하며 그 뜻을 더했다.

'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특한 특색과 문화를 즐기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색적 회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날 공유회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계획' 발표,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전북도는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기구나 국가지원 근거가 있고, 전북도의 대도약 역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행사를 역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중소기업 국제행사는 그동안 사례공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세계한상대회, 한·러 지방 협력 포럼,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원회

국제 컨퍼런스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다양한 행사를 검토하고,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관·단체에서는 아태, 잠버리 등 국제행사 유치사례 및 자연유산, 농생명 등 산업생태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전북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뛰어난 역량과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총평과 함께,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에 기관·단체별로 힘을 모아 지원하기로 했다.

한민회 도 대표협력국장은 "도내 국

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협력해 도에 적합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잠버리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속적인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지역혁신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해 전북 대도약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간담회 개최

전북도가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추진에 나섰다.

도는 7일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도내 10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기업 전문가, 마을기업협회장, 마을기업 대표,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의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해서 공유

하고, 마을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그간 추진해 왔던 마을기업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타 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을 연계해 다양한 마을기업의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 완주 푸드사업단 양선경 사무국장은 우수마을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성장집중 사업 등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 참가자 교육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이 7일 '2021년 선도기업 분석대회 참가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한 전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도내 우수기업인 선도기업

을 홍보하고,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 기업과 청년이 모두 만족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5주간 26개 팀(총 76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도는 분석대회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번의 교육과 4회의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해, 10월 중 본선 진출 9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분석대회 참가자 전원이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직무분석 방법과 기업환경, 사업전략, 마케팅전략, 기술 부문 등의 분석법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교육을 통해 기업 측에 브랜드이미지 제고, 신규 사업화 아이템 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참가 청년들에게는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역량을 습득해 개인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앞으로도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기업의 인재 확보 애로사항 해소와 도내 청년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b>모 집</b>	<b>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b>	<b>상 담</b>
<b>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b>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b>학교별</b>	<b>주요과정</b>	<b>지역별(자유선택)</b>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b>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b>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